

‘조령(鳥嶺)’의 심상지리와 충청의 로컬리티

경상과의 비교를 통한 충청의 지역성 탐색

The Imaginary Geography of Joryeong and the Locality of Chungcheong
: Exploring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Chungcheong through a comparison with Gyeongsang

하윤섭^{••} · 남향^{•••}

국문요약 무형의 로컬리티를 유형의 텍스트로부터 찾아내려 할 때 유념해야 할 것은 그것이 해당 지역만의 어떤 조건에서 기인한 특수한 현상이라는 점인데, 이는 거꾸로 말하면 그 어떤 조건이 부재하는 지역에서는 그러한 현상이 발견되지 않거나 다른 양상으로 발현된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를 ‘조령(鳥嶺)’의 사례를 경유하여 탐색하였는데, 주지하듯 조령은 충청과 경상 사이를 이어주는 말 그 대로의 ‘교통로’인 동시에 두 지역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기도 한다. 이 가운데 본 논문에서는 후자에 좀 더 주목하였으니, 조령의 경우 한양과 동래를 잇는 영남대로(嶺南大路) 상의 지형적 장벽들 가운데서도 지세가 높고 험준한 것으로 유명했던 터라 교통로로서의 이미지만큼이나 장애물로서의 이미지 또한 만만치 않게 강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조령의 이미지가 실제 현실에 미친 영향은 어떠했는가? 조선시대 서울 양반들이 현실적 문제로 인해 서울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지방으로의 이주를 결행할 때 삶의 대안처로 어떤 지역을 선택했는가에 따라 이주 이후의 행적은 사뭇 달랐다. 충청을 택한 이들의 경우 중앙으로의 복귀를 꿈꾼 경우가 많았지만, 경상을 택한 이들의 경우 세상과 절연한 채 그곳에서 생을 마치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이는 아마도 조령을 기준으로 북쪽을 ‘세속의 세계’로, 남쪽을 ‘세속이 아닌 세계’로 구분했던 당대인들의 상상적 인식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충청과 한양 사이에는 조령에 비견될 정도의 지리적 장애물이 존재하지 않는바, 충청과 경상의 서로 다른 로컬리티와 조령에 대한 심상지리는 이 지점에서 만날 수 있다.

핵심어 조령(鳥嶺), 충청, 경상, 로컬리티, 심상지리

- 차례**
1. 문제 제기
 2. ‘중앙’으로부터의 이격지(離隔地): 충청과 경상
 3. ‘중앙’으로의 진입지(進入地): 충청
 4. 충청과 경상의 로컬리티와 조령(鳥嶺)의 영향
 5. 결론

1. 문제 제기

〈그림 1〉은 2022년 11월 9일, 〈제6회 충청유교 국제포럼〉의 성료를 알리는 기사 중 일부이다. 기사의 내용을 보건대 이날 행사의 요점은 “충청유교의 세계화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류(類)의 행사야 지역사회의 문화적 우수성을 전신한다는 나름의 순수(?)한 의도에서 열리는 것이기도 하고, 고사(枯死)의 위기에 처한 이 나라의 인문학 일반이 사회적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방법이기도 해서 이 행사의 학문적 의

• 이 논문은 충북대학교 국립대학육성사업(2023)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음.

•• 제1저자: 충북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yienemy@chungbuk.ac.kr

••• 교신저자: 충청북도 문화재연구원 연구원. nhy177@naver.com

“충청유교는 넉넉한 학풍”...한국유교, 세계와 소통할 수 있을까

송인걸 · 2022. 11. 9. 16:05

🔍 🔊 📄 📌 📧



김태훈 충남지사가 9일 오후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열린 제6회 충청유교 국제포럼에서 기조발표를 하고 있다. 충남도 제공

〈그림 1〉『한겨레』, 2022.11.09자 기사

미가 있고 없음에 굳이 시비를 제기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다만, “충청유교”라는 정체불명의 조어(造語)에 대해서만큼은 따져 물을 게 있으니, 대개 다음과 같다.

주지하듯 ‘충청유교’는 ‘충청’이라는 단어와 ‘유교’라는 단어의 합성어로서 두 개의 단어 중 어디에 방점을 찍는가에 따라 현실에서 발휘되는 화용적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 먼저, ‘유교’에 방점을 찍게 되면 이 합성어의 의미는 유교라는 특정 사상에 무게가 실리면서 ‘충청불교’, ‘충청도교’ 등의 다른 조어들들과 경쟁 관계에 놓인다. 반면, ‘충청’에 방점을 찍을 경우 충청이라는 지역명에 무게가 실리면서 ‘경상유교’, ‘전라유교’ 등의 단어들과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는데, 그렇다면 위 기사에 보이는 ‘충청유교’는 어디에 속할 것인가? 당연히 후자에 해당하는바, 이 행사의 주최가 충남도청이라는 점, 단언하긴 어렵지만 우리의 경우 불교나 도교에 있어 (이것과 저것의 차이를 전제하는) ‘학풍’을 논할 수 있을 정도로 융성하지 않았다는 점, 제시된 기사 가운데 “충청유교는 넉넉한 학풍으로 시대정신을 선도했다”라는 문장에서 ‘선도’라는 말은 모종의 동시성을 품고 있는데, 조선 사회에서 유교의 권위는 너무나 확고해서 불교나 도교와의 동시적인 경합을 상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상기한 기사의 ‘충청유교’는 ‘한국유교’를 상위 범주로 하고, ‘경상유교’, ‘전라유교’ 등을 대립어로 갖는, 그런 점에서 충청 특유의 ‘로컬리티’¹를 부각하려는 말임에 틀림이 없다.

그렇다면 “충청유교는 넉넉한 학풍으로 시대정신을 선도했다”라는 문장은 성립 가능한가? 이 문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첫째, ‘넉넉하다’는 크기나 수효, 무게 등을 전제하는 말이어서 “학문에서의 태도나 경향”을 의미하는 ‘학풍’과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다. 따라서 “넉넉한 학풍”이라고 할 때 ‘넉넉하다’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넉넉한 학풍”의 의미가 명확하게 정비되었다면 다음으로는 그것이 “시대정신을 선도”하는 충분조건이 될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넉넉하지 않은 학풍은 시대정신을 선도할 수 없는가?”와 같은 합리적인 의문들을 피하기 어렵다. 셋째,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이제 남은 일은 “넉넉한 학풍”을 기준으로 할 때 ‘충청유교’의 넉넉함이 다른 지역 유교들의 그것에 비해 우위에 있음을 입증하는 일이다. 이는 로컬리티가 “그 시대에 그 지역에서 그들만이 만들어 낼 수 있었던 특수한 내용”²이기 때문인데, 따라서 특정 지역의 지역성을 발굴해 내기 위해서는 같은 항목에 대한 다른 지역과의 상호 비교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볼 때 상기한 문장은 공적인 자리에서 자신 있게 발화되기에 아직은 상당히 위태로워 보인다.

① 충청 유교문화의 특성은 성리학, 인물성동이론, 양명학, 기학, 의리학, 실학, 예학 등 개방성과 다양성에 있다. 또 다른 특징의 하나는 예 문화의 창출과 향유이다. ‘충청도 양

1 ‘로컬리티’에 대한 다양한 정의 가운데 본 논문에서는 다음의 것을 따른다. “개인 또는 집단의 정체성이 시공간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양상.” 이에 대해서는 정주아, 『서북문학과 로컬리티: 이상주의와 공동체의 언어』, 소명출판, 2014, 14쪽.

2 이해준, 『고을과 마을의 문화 이야기: 지역문화와 생활문화』, 세창출판사, 2015, 65쪽.

반'이라든지, 충청도를 '예의 고장'이라고 부르는 배경은 예학의 근거지가 충남이라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의리적 도학풍' 역시 충청 유교문화의 특징 중 하나이다.³

② 충청유학은 인본사상에 기초한 인간 존중의 가치, 예를 중심으로 하는 리더쉽과 관계의 가치,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문화의 가치 등 세 가지 미래가치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이는 충청유학의 본령이 인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터라 충청유학의 미래가치에 대한 전망을 넘어 한국유학, 나아가 인류가 추구해야 할 세계시민적 공동체문화와 윤리에 대한 지평 확장의 계기가 될 것이다.⁴

'충청유교'라는 말이 위태롭게 쓰인 사례는 학술적 논의의 장에서도 심심치 않게 보인다. 위의 두 논의는 세부적인 결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충청유교'의 어떤 특성들이 해당 지역의 발전을 위한 정신적 자산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공유하고 있다. 충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예문화의 창출과 향유", "의리적 도학풍", "인간 존중의 가치", "공동체문화의 가치" 등 상기한 논의들을 채우고 있는 화려한 수사들에 뿌듯해지기도 하지만, 따지고 보면 이러한 항목들은 '충청유교'뿐 아니라 유교 일반에 해당하는 것들이어서 '충청유교'만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특징이라 선불리 말할 수 없다.⁵ "의리적 도학풍"을 '경상유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가? 인간을 존중하는 정도에 있어 '충청유교'는 '전라유교'에 비해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선뜻 답하기 어렵다면 '충청유교'라는 말의 학문적 지위는 여전히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하는가? 유일한 대안은 아니겠지

만, 필자는 다음과 같은 언급에 주목하고자 한다. "지역문학 연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성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론이다. (...중략...) 첫째, 지역성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형성되는 것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특정 지역의 문학 행위를 논의할 때 그 행위가 이루어지는 맥락이나 역사적 형성 과정은 무시한 채 그것을 지역의 근본 속성으로 돌리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우리는 총체적이며 불변적인 어떤 신비적인 것으로 문화를 인식하는 방식을 넘어서야 한다. 둘째, 어떤 특정 지역의 지역성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인식 또한 지양되어야 한다. 지역성은 항상 다른 지역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존재하기 때문이다. 셋째, 지역은 오늘날의 행정구역의 개념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지역성은 행정구역을 기초로 하면서도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것이다."⁶

그렇다. 우리가 무형의 로컬리티를 유형의 텍스트로부터 찾아내려 할 때 유념해야 할 것은 그것이 해당 지역만의 어떤 조건에서 기인한 특수한 현상이라는 점인데, 이는 거꾸로 말하면 그러한 조건이 부재하는 지역에서는 그러한 현상이 발견되지 않거나 다른 양상으로 발현된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조령(鳥嶺)'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바, 주지하듯 조령은 충청도와 경상도 사이에 끼어 있는 험준한 자연물이면서 둘 사이를 이어주는 말그대로의 '교통로'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두 지역의 지역성을 상호 비교하는 데에 안성맞춤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두 지역은 서울 및 근기 지역과 떨어져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그 멀고 가까움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꼭 같지는 않은데, 필자는 이 지점이 두 지역의 같고 다른 지역성을 파악하는 데 있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경상에는 없고 충청에는 있는 어떤 것, 이 보이지 않는 실체를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자.

3 김경수, 「충청유교문화권 개발과 유교의 현재화를 위한 제언」, 『한국사학사학보』 39, 한국사학사학회, 2019, 241쪽.

4 민황기, 「충청유학의 현재와 미래가치」, 『울곡학연구』 43, (사)울곡연구원, 2020, 434쪽.

5 하운섭·김소라, 「의림지를 둘러싼 문학지리학적 접근과 로컬리티의 발굴: 고전문화와 지리학의 학제 간 연구를 겸하여」, 『한글연구』 15, (재)한국연구재단, 2023, 275~276쪽.

6 김창원, 『고전시가의 지역성과 심상지리: 조선시대 서울 및 근기 지역을 대상으로』, 한국문화사, 2018, 17쪽.

2. ‘중앙’으로부터의 이격지(離隔地): 충청과 경상

『표준국어대사전』을 찾아보면 ‘경기(京畿)’라는 표제어에는 다음과 같은 2개의 정의가 제시되어 있다. “〈1〉 서울을 중심으로 하여 그 주위의 가까운 지방 〈2〉 우리나라 중서부에 있는 도. (……) 도청 소재지는 수원(水原)이다. 면적은 약 10,185km².” 하나의 단어에 복수의 의미가 깃들어 있는 다의어의 경우 각각의 의미들이 지시하는 대상은 다르기 마련이므로 상기한 정의에서 〈1〉과 〈2〉가 지시하는 대상 역시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1〉의 ‘서울’은 한국에만 존재하는 특정 지역이 아니라 “한 나라의 중앙 정부가 있고, 경제, 문화, 정치 등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도시”와 같이 일반명사로 새기는 것이 적절해 보이는데, 새삼스러운 질문이긴 하나 우리의 언어생활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2〉가 〈1〉보다 뒤에 배치되어 있는 것은 어째서인가?

사실, ‘경기’는 천자(天子)가 거주하는 도성 ‘경(京)’과 도성으로부터 사방 500리를 뜻하는 ‘기(畿)’의 합성어로, 천자의 교화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천자의 직할지를 의미했다.⁷ 다시 말해, ‘경기’라는 말은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에서 널리 통용되던 일반명사라는 것인데, 이렇게 볼 때 ‘경기’는 원래는 일반명사(〈1〉)로 쓰이다가⁸ 고려와 조선을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특정 지역을 지칭하는 고유명사(〈2〉)로 전용된 사례에 해당한다. 따라서 〈2〉는 〈1〉의 의미에 기반해 있는바, 〈2〉의 태생적 의미는 “임금의 교화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 정도가 될 텐데, 실제로 “경기(京畿)는 왕화(王化)가 먼저 미치는 곳”(『태종실록』 1년 1월 14일)이라든지 “경기는 사방의 근

본으로서 왕화가 앞서야 할 곳”(『연산군일기』 12년 8월 9일), “경기는 사방의 근본이고, 서울은 또한 경기의 근본”(『순조실록』 12년 1월 24일)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당대인들은 경기 지역에 대해 경기 바깥의 지역과는 다른, 매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흥미로운 것은 경기 지역에 대한 이러한 인식이 조선 시대 양반들이 거주지를 결정하는 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서울의 관료들은 정치적 문제로 인해 벼슬살이에서 물러난 후 복직이 될 때까지 잠시 머무는 집, 이른바 ‘별서(別墅)’를 주로 경기 지역에 마련했는데, 이는 자신의 거주지가 한양과 너무 멀리 떨어지게 되면 다시는 못 올라오게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었다.⁹ 익히 알려진 기록이긴 하지만, 다산 정약용(1762~1836)이 아들들에게 준 편지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서울 근교(近郊), 곧 경기 지역을 벗어나지 말 것을 주문한 것¹⁰ 역시 이러한 인식의 선상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는 역으로 중앙으로의 복귀를 단념한 이들의 경우 경기 바깥의 지역에다 거주지를 마련한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니, 충청과 경상 역시 그중 하나였다.

① 성종대왕 11년 경자년(1480) 모월 모일에 선생이 한양에서 태어났다/ 기묘년(1519) 선생 40세 11월 15일 밤에 남곤 등이 사화를 일으켜 선생은 조광조 등 여러 명과 함께 감옥에 갇혔다. ○ 물러나 용인의 사암으로 돌아갔다. ○ 12월에 삭탈관직을 당했다./ 경진년(1520) 선생 41세 충북 음성읍

9 김창원, 앞의 책, 85쪽.

10 “만약 가세가 쇠락하여 도성으로 깊이 들어가 살 수 없다면 모름지기 잠시 근교에 머물면서 과수를 심고 채소를 가꾸어 생계를 유지하다가 재산이 좀 넉넉해지기를 기다려 도심의 중앙으로 들어가더라도 늦지는 않을 것이다. (…중략…) 진실로 너희들에게 바라노니 항상 심기(心氣)를 화평하게 하여 벼슬길에 있는 사람들과 다름없이 하라. 그리하여 아들이나 손자 대(代)에 가서는 과거(科擧)에도 마음을 두고 경제(經濟)에도 정신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늘의 이치는 돌고 도는 것이라서 한 번 쓰러졌다 하여 결코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니, 만약 하루아침의 분노를 견디지 못하고 서둘러 먼 시골로 이사가 버리는 사람은 천한 무지렁이로 끝나고 말 뿐이다.” 정약용, 『示二兒家誡』, 『여유당전서』 第一集詩文集第十八卷○文集, 『한국문집총간』 281, 한국고전번역원, 2002, 388쪽.

7 최연식, 「조선시대의 중앙-지방 관계와 ‘경기’ 제도의 발전」, 『연세행정논총』 29, 연세대 행정대학원, 2006, 214쪽.

8 예를 들어 『삼국사기』 「신라본기」 「경순왕 5년」 조에는 “(고려) 태조가 50여 기(騎)를 거느리고 경기(京畿)에 이르러 왕을 만나 뵙기를 청하였다(太祖率五十餘騎, 至京畿通謁)”라는 기록이 보이는데, 여기에서의 ‘경기’는 신라의 서울이었던 경주의 인근을 의미할 뿐 특정 지역의 지명을 가리키지 않는다.

애로 옮겨 갔다/ 계사년(1533) 선생 54세 12월 15일 충주 토계의 몽암에서 명을 달리하셨다./ 갑오년(1534) 봄에 용인 기곡면 선영 아래 간좌 언덕에 안장하였다.¹¹

② 이때 적신(賊臣)이 계속해서 큰 옥사(獄事)를 일으켜 없는 죄를 뒤집어씌워 반대파를 범망에 끌어넣으니, 많은 친척이 화가 미칠 것을 두려워하여 공에게 한번 나아가길 권했으

나 공은 빙그레 웃으며 “화와 복은 운명입니다”라고 하였다. 경기의 농장(坵莊)이 서울과 가까운 것이 싫어서 호서(湖西) 신창현(新昌縣)의 도고산(道高山) 밑으로 옮겨 가 우거(寓居)하였다.¹²

③ 이해 겨울에 병란이 크게 일어나 공이 모부인을 모시고 조령(鳥嶺) 남쪽으로 피난하였는데, 이듬해 봄에 오랑캐가 화의(和議)를 맺고 포위를 풀고 돌아갔다. 이에 공이 북쪽으로 돌아갈 마음이 없어 마침내 봉화(奉化)의 두곡리(杜谷里)에 가서 풀을 엮어 집을 짓고 살았으며, 때때로 산수간(山水間)에서 노닐며 세속의 일에 관여하지 않았다. 사는 곳에 따라 ‘두곡’이라 자호하고, 여기에서 여생을 마칠 계획을 하였다.¹³

①은 기묘명현 중의 한 사람인 음애 이자(1480~1533)의 연보를 재구성한 것이다.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성



(그림 2) 용인 한산이씨 음애공파 고택(龍仁 韓山李氏 陰崖公派 古宅)(출처: '용인일보', 2023.05.08)

장했고 또한 서울에서 줄곧 관직 생활을 한 그는 전형적인 ‘서울 양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인지 그의 연보에는 ‘경제(京第)’, 곧 ‘서울집’이라는 표현이 자주 보인다. 그런데 연보에는 서울집 말고도 그가 머물렀던 또 다른 집의 존재가 확인되는바, 위 기록에 보이는 “용인의 사암”이 바로 그곳이다. 경기도 용인은 이자 집안의 선영(先塋)이 있는 곳¹⁴이었던 만큼, “용인의 사암”은 그의 별서가 틀림없는데, 그는 기묘사화에 연루되어 옥에 갇혔다 풀려난 후 곧바로 이곳을 찾았다. 본 논의와 관련하여 주목할 지점은 그가 12월에 관직을 삭탈 당한 후에 경기 용인에서 충북 음성으로 거처를 옮겼다는 것이니, 여기에는 혼탁한 정치 현실과의 절연(絶緣)이라는 그의 심적 태세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②에서도 엿볼 수 있는데, 시장(諡狀)의 대상자인 포저 조익(1579~1655)은 그의 나이 35세 되던 1613년에 이이첨 등이 영창대군을 죽이고 폐모론을 주창하자 벼슬을 그만두고 서울집을 팔아 버린 후 선영이 있는 경기도 광주로 돌아왔다.¹⁵ 위 기록의 “경기의 농장”은 이

11 이도홍, 「연보」, 『음애집』, 『한국문집총간』 21, 한국고전번역원, 1988, 71쪽. “本朝成宗大王十一年 庚子月日, 先生生于漢都. / 己卯 先生四十歲十一月十五日夜, 南袞等起士禍, 先生與靜庵諸公就獄. ○退歸龍仁之思庵. ○十二月, 削奪官職. / 庚辰 先生四十一歲 移寓陰城之陰崖. / 癸巳 先生五十四歲 十二月十五日, 考終于忠州免溪之夢庵. / 甲午春, 葬于龍仁器谷面先兆下艮坐之原.”

12 송준길, 「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議政兼領 經筵事監春秋館事 世子傳 浦者趙公諡狀」, 『동춘당집』 권22, 『한국문집총간』 107, 한국고전번역원, 1988, 234쪽. “時賊臣連起大獄, 羅織異己, 親戚懼禍及, 多勸公一出, 公適然曰, 禍福命也, 坵莊近京益厭之, 轉寓於湖西之新昌道高山下.”

13 이현일, 「墓誌銘」, 『두곡집』 권5, 『한국문집총간속』 26, 한국고전번역원, 2006, 400쪽. “是冬虜兵大作, 公奉母夫人, 逃禍大嶺之南. 明年春, 虜約和撤圍而去, 公於是無心北還, 遂即奉化之杜谷里, 結草爲堂, 偃仰其中, 時時放跡山水間, 不以俗爲事, 因其居自號杜谷, 爲終老之計.”

14 이도홍, 위의 글. “十五日, 考終于忠州免溪之夢庵. 十三年甲午春, 葬于龍仁器谷面先兆下艮坐之原, 先生墓在大諫公墓岡參議公墓下.”

15 한국고전종합DB > 고전번역서 > 포저집 > 포저연보 제1권 (https://db.itkc.or.kr/dir/item?itemId=BT#/dir/node?datald=ITKC_BT_0321A_0370_000_0010). “41년 계축(1613) 선생 35세 ○ 벼슬을 그만두고 광주(廣州)의 선영(先塋)으로 돌아왔다. 이때 광해의 혼란한 정사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가운데 이이첨(李爾瞻) 등이 국구(國舅)와 대군(大君)을 무함하여 죽이고 잇따라 폐모론(廢母論)을 꺼냈으므로, 선생이 마침내 벼슬에 대한 뜻을 끊어버렸다. 연양부원군(延陽府院君) 이공 시백

를 말하는 것인데,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충남 아산의 신창현으로 거주지를 옮겼으며, 그 이유는 “서울과 가까운 것이 싫어서”였다. 당시로서는 광해군 정권의 말로를 짐작조차 하기 어려웠을 터이니, 이 사례를 통해서도 우리는 당대의 양반들이 조정으로의 복귀를 단념했을 때 나머지 삶의 대안처로 선택한 곳이 ‘충청’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앞의 두 기록이 충청의 사례였다면, ③은 경상이다. 두곡 홍우정(1593~1654)은 병자호란이 발발하자 모친을 모시고 여러 동생과 함께 태백산 아래로 피신하였다. 그러던 중 임금이 오랑캐에게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북쪽으로 돌아갈 마음이 없어” 경북 봉화의 두곡리에서 여생을 보냈다. “대명천하에 집 없는 나그네요 / 태백산중에 머릿털 있는 중이로세”¹⁶라는 그의 유명한 시에는 오랑캐가 천하의 주인이 되어버린 세상에서 어디에도 발 붙일 곳이 없다는 쓰디쓴 자괴감과 산사(山寺)의 승려와 같이 산중에 은둔한 채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겠다는 견결한 의지가 오롯이 담겨 있다.¹⁷ 다른 기록을 통해 추정 가능한 그의 피란 전 거주지는 경기도 안성이었으니,¹⁸ 그에게도 ‘경기’는

상징적인 의미로서의 ‘서울’과 그리 다르지 않은 곳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지금껏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시대 양반들은 경기 지역을 서울의 자장 안에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리하여 예기치 않은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현직에서 물러났을 경우에도 가급적 경기 지역을 벗어나지 않은 채 사태의 추이를 관망하면서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그중의 어떤 이들은 경기 바깥 지역으로의 이주를 통해 자신이 살아온 삶의 기반을 바꾼 사람들이 있었던바, 여기에는 당면한 현실이 변하지 않을 경우 세속의 세계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이주 주체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었다. 충청과 경상 모두 그들의 선택지 안에 포함되어 있었으니, 서울로부터의 물리적 거리는 서울로부터 멀어지고 싶다는 심리적 거리에 일정하게 조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3. ‘중앙’으로의 진입지(進入地): 충청

2장의 논의에 따르면, 충청과 경상은 경기를 비교 대상으로 할 때 중앙이 아니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하지만 충청과 경상을 일대일로 맞세울 경우 바로 그 중앙과의 거리차(差)로 인해 서로 다른 심상지리를 갖기도 하는데, 여기서 ‘심상지리’란 특정한 지역에 대해 외부인이 갖게 되는 상상적 인식¹⁹으로, 주지하듯 이 개념은 서구 사회가 비서구 사회를 공간적으로 타자화하는 과정을 비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러나 인간이 모여 사는 곳에 넓은 의미의 ‘식민성’은 늘상 존재하기 마련이므로 충청 지역에 대한 조선조 사대부들의 인식 여하를 따져보는 자리에 이 개념을 시험해 보더라도 무방하지 않을까 한다. 다음의 자료들에서 살펴보겠지만, 서울과의 거리를 기준으로 ‘살

(李公時白)이 선생에게 처신(處身)의 도리를 묻자 선생이 답하기를, “선비가 어떻게 국모(國母)가 없는 나라에서 뜻을 행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니, 이공이 말하기를, “나도 과거 공부를 그만두겠다”라고 하였다. 이로부터 10여 년에 걸쳐 관직을 제수하는 명이 이어졌으나 모두 나아가지 않았다. 그리고 경성(京城)에 있는 집도 팔아버리고 남겨 두지 않았다.”

16 홍우정, 「無題」, 『두곡집』 권2, 앞의 책, 376쪽, “大明天下無家客, 太白山中有髮僧.”

17 참고로 신영주(『두곡 홍우정의 일생과 시작 활동에 관한 고찰: 천안 유배기를 중심으로』, 『한문고전연구』 33, 한국한문고전학회, 2016, 125쪽)는 이 시에 대해 “집 없는 나그네”라는 말은 그가 아직은 이곳을 자신의 마지막 정착지로 생각하지 않았으며, 언젠가 다시 한양의 본가로 돌아가 나그네 신세를 청산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 ‘머리 기른 중’이라는 말은, …… 부득이 잠시 무도한 현실을 피해 승려와 같은 행색을 하고 있는 것일 뿐임을 스스로 밝힌 것이다”라고 하여 그가 이 시를 지을 당시 세속, 곧 한양으로의 복귀를 염두에 두고 있던 것으로 해석하였지만 수차례의 제수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은거하였던 그의 생애를 감안할 때에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홍우정의 행장을 지은 이상정 역시 이 시를 두고서 “이곳에서 일생을 마칠 뜻을 품은 것이다(遂有終焉之志)”라고 하였으니, 필자 역시 이 시를 그 선상에서 읽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한다. 이상정, 「杜谷洪公行狀」, 『대산집』 권50, 『한국문집총간』 227, 한국고전번역원, 2002, 479쪽.

18 「南坡先生年譜」, 『남파집』 「年譜」 권1, 『한국문집총간』 106, 한국고전번

역원, 1988, 270쪽. “五年丁卯, 公二十三歲 春, 淸人東搶, 奉大夫人避亂 槐山郡. ○四月亂定, 還安城舊居.”

19 김승환, 『인문학 개념어 사전 2』, 소명출판, 2022, 36~38쪽.

만한 곳'[可居地]의 우열을 매기는 서울 양반들의 시선은 유럽을 기준으로 비서구 사회를 재단하는 제국주의자들의 그것과 어떤 측면에서는 꽤나 닮아있다.

① 충청도는 경기도와 전라도 사이에 있다. 서쪽은 바다와 접해 있고 동쪽은 경상도와 접해 있다. 동북쪽 모서리의 경우 충주 등의 고을이 강원도 남부로 쏙 들어가 있다. 충청도 남쪽의 절반은 차령 남쪽에 있어 전라도와 가깝고, 북쪽의 절반은 차령 북쪽에 있어 경기도에 인접해 있다. 물산의 풍부함은 경상도와 전라도에 미치지 못하지만, 산천이 평탄하고 아기자기하며 서울에서 가깝고 남쪽에 위치하여 자연스레 벼슬아치들이 모여 사는 본거지가 되었다. 서울의 명문가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도내에 전답과 살 집을 마련하여 근본을 이루는 터전으로 삼고 있다. 게다가 서울과 가까워서 풍속이 크게 다르지 않으니 선택하여 거주할 만한 최적지이다.²⁰

② 우리나라 팔도 중에서 평안도는 인심이 순박하고 후덕하기로 제일가고, 다음으로 경상도는 풍속이 질박하고 진실하다. 함경도는 오랑캐 땅과 접해 있어 백성들이 모두 굳세고 사나우며, 황해도는 산수가 험하고 막혀 있어 모질고 사나운 백성이 많다. 강원도는 산골이라 물정에 어두운 백성들이 많고, 전라도는 오로지 교활함과 음험함을 숭상하여 그릇된 일에 쉽게 움직인다. 경기도는 도성 밖 들에 있는 고을이라 백성과 산물이 쇠약하고 피폐하며, 충청도는 오로지 권세와 이익만을 좇는다. 팔도의 인심이 대략 이렇다.²¹

이중환(1691~1756)이 남긴 『택리지』의 일부이다. ①과 ②에서 우선 주목되는 바는 평가 대상에 대한 긍정적 여부를 기준으로 할 때 두 개의 기록이 동일한 사람의 평가치고는 사뭇 다르다는 점이다. ①의 “거주할 만한 최적지”에는 아무리 봐도 부정적으로 해석할 만한 요소가 별로 보이

지 않는 반면, ②의 ‘권세와 이익만을 좇는다.’라는 표현의 경우 정확하게 그 반대의 측면에서 그러하다.²²

①과 ②가 하나의 지역에 대한 한 사람의 판단이라면 둘 사이에는 모종의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다. 어떠한 이유에서 이중환은 충청 지역을 거주할 만한 최적지로 평가해 놓고 정작 그 지역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로지 권세와 이익만을 좇는다”라고 말한 것일까? 필자는 “서울과 가까워서”라는 ①의 언급에 주목하고자 하는데, 어떤 행위의 전제 조건이 ‘가능성’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권력에 대한 충청 사람들의 열망이 높다는 사실은 여타 지역에 비해 권력을 쟁취해야만 하는 동기가 뚜렷하거나 쟁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이와 관련하여 『택리지』의 원제가 『사대부가거처(士大夫可居處)』라는 사실²³은 의미심장하다. 사대부가 살 만한 곳을 물색한다는 것은 결국 이주(移住)를 전제로 한 것일 텐데, 평안도부터 경기도까지 이 책에 제시된 조선 팔도(八道)가 이주의 목적지라면, 그 출발지는 아무래도 서울일 가능성이 높다. 이 책에 한양에 대한 기술이 빠져 있다는 점,²⁴ 서울과의 거리가 가거지의 선부(善否)를 가리는 기준으로 제시된다는 점, 무엇보다 이중환 자신이 서울 사

22 이 단락을 포함하여 아래의 4개 단락은 하윤섭, 「패퇴와 도모의 땅, 충북: 송강묘의 이장(移葬)으로 본 충북의 로컬리티」, 충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단 편, 『고전문학으로 충북을 읽다』, 충북대학교 출판부, 2021, 119~121쪽에서 인용하되 맥락에 맞게 수정하였음.

23 이중환, 앞의 책, 13쪽.

24 이 점, 『택리지』의 영향을 받아 지어진 것으로 평가받는 성해응(1760~1839)의 『명오지』, 서유구(1764~1845)의 『상택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책들에는 한양을 제외한 나머지 8도에 대한 평가만이 서술되어 있는데(안대회, 「조선 후기의 좋은 집터, 이상적 거주공간의 이론과 실제: 『임원경제지』 「상택지」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83,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9, 447~479쪽), 이는 이 책들의 잠정적 독자가 서울로부터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는 서울 양반들이었음을 시사한다. 그런데 18~19세기에 서울 양반들을 염두에 둔 택리지류(類)의 저서들이 즉출한다는 사실은 이주의 필요성이 서울 양반들에게 좀 더 빈번하게 발생했음을 의미하는바, 이를 감안할 때 서울과 서울이 아닌 지역의 차이 중 경쟁(政爭)이 놓여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양승목 역시 “그가 피해야 할 ‘亂’은 정치판의 전쟁이었는지도 모른다”라고 하여 조선 후기 문인들 사이에서 유행한 ‘살 곳 찾기’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경쟁을 꼽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양승목, 「조선후기 십승지론의 전개와 ‘살 곳 찾기’의 향방」, 『한국한문학회』 63, 한국한문학회, 2016, 122쪽 참조.

20 이중환, 안대회 외 역, 『완역 정본 택리지』, 휴머니스트, 2018, 110쪽.

21 위의 책, 185쪽.

람이라는 점²⁵ 등이 그 증거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 책이 상정한 1차적인 독자는 서울에 거주하던 양반들이 틀림 없는데, 그들이 서울에서의 삶을 청산하고 지방으로의 이주를 결심하게 되는 때는 대개 언제인가?

안대회는 이를 조선 후기에 벌어진 치열한 당쟁의 결과로 설명한 바 있다. 요컨대 “당파의 전개와 결과가 사대부로 하여금 서울을 등지게 만들고, 관직으로부터 밀려나게 하고, 정주한 삶의 안녕으로부터 거리와 지방으로 나돌게 만드는 핵심적 요인”²⁶이며, 이것이 바로 그가 이 책을 짓게 된 중요한 동기라는 것이다. 실제 이중환은 「인심」조에서 선조 대부터 당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지속된 당쟁의 과정을 지리할 정도로 상세하게 서술하였는데, 언뜻 보기에 ‘인심’과 무관해 보이는 당쟁의 문제로 해당 지면의 대부분을 채운 의아함은 이러한 동기하에서 좀 더 명료하게 이해된다.

그렇진대 ①에 보이는 (충청도로 이주한) 서울의 벼슬아치들 가운데 일부를 중앙의 정치 현장에서 벌어진 비정한 권력의 쟁투 과정에서 밀려난 이들로 보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을 듯하다. 지금도 그렇지만 서울의 안정적 기반을 뒤로한 채 지방으로 내려오는 일은 경향의 위계가 강고한 사회에서는 좀처럼 쉽지 않다. 그런데 패배로 인한 절망은 승리에 대한 다짐으로 바뀌어도 말이 되지 않는가? 필자는 이중환이 충청에 대해 “오로지 권세와 이익만을 좇는다”라고 평한 것을 이러한 맥락에서 읽어보려고 하는데, 중앙에서의 패배를 수용하고 지방으로의 퇴각을 결행할 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충청으로 향했던 데에는 서울과 가까워서 풍속이 다르지 않다는 점에 더해 훗날의 승리를 도모하기에 적합하다는 이유 역시 한 권을 차지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조선 후기 문인들이 정쟁에서 밀려난 뒤에 충북이 포함된 남한강 유역에 주로 은거

지를 마련했던 것은 다른 지방에 비해 한양과의 거리가 멀지 않아서 한양에 대한 단절감을 크게 느끼지 않으면서도 중앙 정계의 동향을 어렵지 않게 살필 수 있기 때문²⁷이었으니, 중앙으로부터 원치 않는 이탈을 경험한 이들은 중앙으로 재진입하려는 욕망을 반대급부로 갖게 마련이다.

① 공은 용경 경오년(1570) 삼월 초 2일에 한양 남쪽의 소문동 집에서 태어나셨다. …… 일찍이 형님 진사공을 따라 충청도 금산의 유곡으로 이사하였다. …… 선영이 경기도 광주에 있어 5일 정도의 거리였으나 매년 봄과 가을이면 반드시 가서 살펴보고 형님과 함께 가서 순월(旬月)이 지난 후 돌아왔다. …… 만력 병진년(1616) 팔월에 병을 얻어 9월 초 4일에 돌아가셨는데, 숨이 끊어질 무렵에 울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우리 집안은 대대로 서울에 거주하면서 벼슬이 끊이지 않았는데, 미처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내가 죽으니 너희들이 장차 향인의 신세를 면치 못하겠구나. 그러나 너희들이 학문에 힘써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는다면 내가 죽어서도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이다.”²⁸

② 내가 다른 고장을 택하여 사는 데에 실패한 것은 낙토(樂土)를 얻어서 후손을 남기고 기르려 했으되 본래 가진 것은 없으면서도 바라는 것이 많아서 결국에는 나를 진사하는 게 책조차 될 수 없었다. …… 낙토를 다시 논하자면 우리 왕도를 버리고 다시 어떤 세계에서 구한단 말인가?²⁹

27 이새롬, 「조선 후기 문인의 남한강 유역 공간 인식과 시적 형상화」,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22, 206쪽.

28 이윤탈, 「先考贈吏曹參判墓誌文」, 『초려집』 권22, 『한국문집총간』 118, 한국고전번역원, 1988, 439쪽. “公以隆慶庚午三月初二日, 生于漢京南小門洞之第. …… 嘗從伯氏進士公, 南徙于錦山之柳谷. …… 先塋在廣州五日程之遠, 而每年春秋必走省, 與伯氏連轡, 或旬月而後歸. …… 萬曆丙辰八月得疾, 九月初四日屬纊, 臨絕泣謂孤曰, 吾世家京城, 簪組不絕, 未及返舊, 吾今已矣, 汝等將不免爲鄉人矣. 然爾各勉學, 不至墜落門戶, 則吾死瞑目矣.”

29 이규경, 「擇里辨證說」, 『오주연문장전산고』. 한국고전종합DB>고전원문)오주연문장전산고(https://db.itkc.or.kr/dir/item?itemId=GO#/dir/node?datalog=ITKC_GO_1301A). “予之見敗, 於擇里而居者, 欲得一樂土, 種我後昆也. 素無所持, 而所欲者奢, 故終無自身之策. …… 復論其樂土, 則捨我王都, 更求何許世界耶?”

25 안대회, 「청담 이중환 생애의 재조명」, 『한국한문학회』 73, 한국한문학회, 2019, 231~232쪽.

26 안대회, 「『택리지』와 조선 후기 지방 이해의 혁신: 부랑하는 존재의 이주와 정주」, 『한국한문학회』 53, 한국한문학회, 2014, 73~74쪽.

③

千古精神子史叢 수많은 서책으로 천고의 정신 기르고
 生平自可丈夫雄 한평생 대장부라 자부하였지
 逢時不必皇王際 때를 만남은 요순삼대(堯舜三代)를 기필
 할 수 없고
 墮地寧須嶽瀆中 떨어진 땅이 어찌 반드시 오악사독(五嶽四
 瀆)이라
 七寶莊嚴欺雋策 칠보장엄(七寶莊嚴)은 탁월한 계책을 속이고
 列星圖畫眇元功 열성도화(列星圖畫)는 원대한 공적을 멀
 리하네
 壯心初不年俱老 장대한 마음은 나이에 따라 늙지 않으니
 夢裏尋常一太公 꿈속에선 늘상 강태공이라네.³⁰

①은 초려 이유태(1607~1684)가 지은 아버지 이서(李曙)에 대한 묘지문 중 일부이다. 이 기록은 본 논의와 관련 하여 여러 가지 정보를 말해주는데, 먼저 이서의 집안은 대 대로 한양에 거주하면서 경기도 광주에 선영을 갖춘 전형 적인 서울 양반이었다. 그러다 이서의 형인 이시(李時)가 광해군 대에 공박을 받아 성균관 유적(儒籍)에서 삭탈된 후 형과 함께 충청도 금산으로 내려와 살게 되었는데,³¹ 47세 의 나이로 죽음을 앞둔 그는 어린 자식들에게 서울로 돌아 가지 못한 채 자신이 죽게 되었음을 한탄하면서 학문을 통 해 가문의 명예를 회복할 것을 당부하였다.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충청에 거주하였으면서도 서울로 돌아갈 꿈을 항상 품고 있었다는 것인데, 주지하듯 그의 꿈은 아들 이유태가 조정의 관직을 역임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³²

②는 이덕무의 손자이기도 한 오주 이규경(1788~1856)

의 사례이다. 서울에서 태어난 그는 줄곧 서울에서 성장 하다가 34세가 되던 해인 1821년에 식솔들을 이끌고 충 남 서천의 봉암리로 이주를 결행한다.³³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으나 그는 자신의 거듭된 이주를 두고 “인궁반본(人窮反本)”이라 했으니, 가산이 넉넉지 않고 벼슬에 오르지 못한 것이 서울 생활을 정리하게 된 주된 이유였을 것으로 보인다.³⁴ 그 후 39세 때 서울로 돌아와 2년을 보냈으며, 45~51세 때에는 충청도 공주에서, 52세 이후로는 충청 도 충주에서 삶을 영위하다 1856년 69세의 나이로 충주 덕산면 마삼리에서 생을 마감한다. 생의 절반을 충청에서 지낸 셈인데, 그럼에도 그가 “다른 고장을 택하여 사는 데 에 실패”했다고 말한 것은 무슨 연유에서였을까? 과한 추 정이긴 하나 아무래도 그는 충청에서 기반을 다진 후 다시 서울로 돌아가기를 희망한 듯하다. 이는 <택리지변증설 (擇里辨證說)>의 전반적인 요지가 선대부터 살던 곳을 함부 로 떠나서는 안 된다³⁵는 것이라는 점, 충청으로 이주한 후 에도 검서관 취재(取才) 시험에 계속해서 응시한 점,³⁶ 윗 글의 마지막 문장에서 조선 최고의 낙토를 한양으로 꼽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그리한데, 이렇게 볼 때 그가 말한 “실패”의 구체적인 의미는 귀경(歸京)에의 실패로 보이는 바, (이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규경 역시 충청에서 ‘회복 을 도모’하고 있었던 것이다.

③은 회와 안중관(1683~1708)의 시이다. 그의 문집인 『회와집』의 해제에 의하면 그는 1683년 경기도 여주에서 출생하였는데,³⁷ 1708년 진사시에 합격했을 당시 그의 거

30 안중관, 「自述」, 『회와집』 권1, 『한국문집총간속』 65, 한국고전번역원, 2008, 250쪽.

31 이유태, 「伯父生員李公行狀」, 앞의 책, 446쪽. “嘗在光海朝, 有一宰臣素親厚, 被誣受刑, 公往見之, 爲時人所攻, 見削於太學儒籍, 仍廢科, 與先君隱居于錦山之柳谷.”

32 참고로 『사마방목』에서 확인되는 그의 아들 이옹(李顒)의 거주지는 ‘한성’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는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참조.

33 이하, 이규경의 생애에 대해서는 박상영·안상우, 「오주 이규경의 생애 연구」, 『민족문화』 31, 한국고전번역원, 2008, 167~170쪽.

34 김채식, 「이규경의 우복동 변증에 대한 고찰」, 『한문학보』 20, 우리한문학회, 2009, 254쪽.

35 이규경, 앞의 글. “一朝輕棄先人之廬, 甚不可也.”

36 김채식, 앞의 글, 254쪽 각주 4번에 의하면 이규경은 21세(1808), 36세(1823), 44세(1831)에 검서관 취재 시험에 응시하였으니,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낙남(落南) 이후의 응시 횟수는 최소 2회이다.

37 한국고전종합DB>해제>한국문집총간 해제>회와집(https://db.itkc.or.kr/dir/item?grpld=hj#/dir/node?grpld=hj&datald=ITKC_ML0997A).

주지가 ‘한성’³⁸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의 집안 역시 서울에 경제를 두고 경기에 별서를 확보한 전형적인 서울 양반으로 보인다. 그는 32세 되던 해인 1714년에 벼슬을 그만두고 충주의 가흥으로 이거하였는데, 세세한 이유를 알기는 어렵지만 <거봉당설(去朋黨說)>에 보이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고려할 때 정치적 문제로 인한 실세가 주된 원인이 아닐까 한다. 상기한 시는 충주에 우거할 때 지은 것으로,³⁹ <자술(自述)>이라는 시의 제목에는 당면한 현실에 대한 그의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본 논의와 관련하여 주목할 지점은 마지막 2개의 행이니, ‘나이가 들어도 늙지 않는 장대한 마음’과 ‘꿈속에서 늘상 만나는 강태공’을 연결하면 그는 충주에 은거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능력을 알아줄 세상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다. 흥미롭게도 안중환은 1740년에 충청도 가흥에서 강원도 원주로 다시 한번 거주지를 옮기는데, 이후 창작한 그의 시편들에는 관직에 대한 미련보다는 현재의 삶에 대한 만족이 훨씬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⁴⁰ 그렇다면 충청이 아닌 경상으로 이거한 경우는 어떠한가? 충청에 비해 그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아쉬운 대로 다음의 자료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① 이수형 …… 경태 병자년에 육신이 죽자 공은 관직을 버리고 남쪽으로 내려가 귀성의 도촌에 터를 잡았다. …… 공은 훈신 이억의 현손으로 대대로 서울에 살면서 약관의 나이에 벼슬을 시작하여 5품복을 받았는데, 하루아침에 고향을 버리고 선대의 묘소를 떠났으니 벼슬 버리기를 분토와 같이 여긴 것이다. 황량하고 적막한 곳에 투신하여 70여 년 동안 궁핍함을 참아 가면서도 한 번도 서울에 발을 지 않았으니 그 마음이 또한 매우 힘들었으리라.⁴¹

② 심장세 …… 정축년의 변란 이후 서울에 살기가 싫어서 영천 수령으로 나아갔다. 갑신년 순정황제가 사직을 따라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더욱 세상에 뜻이 없어서 홍우정, 정양, 강흥, 홍석 등이 태백산에 은거한다는 것을 듣고서 마침내 관직을 버리고 함께 돌아갔다.⁴²

①은 도촌 이수형(1435~1528)의 사례이다. 인용문에도 나와 있듯 그의 집안은 대대로 서울에 거주하였고, 그 역시 서울에서 성장하였으나 단종의 폐위와 사육신의 죽음을 목도한 후 그는 관직을 버리고 귀성(龜城), 곧 지금의 경북 영주로 내려가 평생을 살았다. 70여 년 동안 “한 번도 서울에 발을 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니 이 점, 충청으로 이주한 후 줄곧 중앙으로의 복귀를 도모했던 앞서의 사대부들과 적지 않게 다르다.

②는 각금당 심장세(1594~1660)의 사례이다. 고조부가 명종 때 영의정을 지낸 청천부원군(靑川府院君) 심연원(沈連源), 증조부가 명종의 장인인 청릉부원군(靑陵府院君) 심강(沈綱), 조부가 대사헌을 지낸 심의겸인 데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 그의 집안은 대대로 서울에 거주하면서 중앙의 요직을 차지했던 명문거족이었다. 그런데 그는 병자호란 이후 서울에 살기가 싫어져서 경북 영천의 수령으로 자임해서 나아갔다가 1644년에 명나라 순정황제가 자결했다는 소식을 접한 후 아예 세상과 단절하기 위해 태백산 자락에 있는 경북 봉화의 춘양으로 들어가 살다가 67세의 나이로 그곳에서 생을 마감한다. 그의 아버지인 심엄(1563~1609)과 맏형인 심광세(1577~1624) 모두 선영이 있

or.kr/dir/item?itemId=KP#/dir/node?dataId=ITKC_KP_C006A_0120_010_0060). “李秀亨 …… 景泰丙子，六臣死，公棄官南歸，卜居于龜城之桃村。…… 公以勳臣疑玄孫，世居京師，弱冠筮仕，受五品服，一朝離鄉去墓，棄軒冕如糞土，而投荒遐寂寞之中，忍窮餓七十餘年，足跡未嘗一到京師，其心亦太苦矣。”

42 성해응, 「趙束, 許格, 洪宇定, 洪錫, 姜洽, 沈長世」, 『연경재전집』 권53, 『한국문집총간』 275, 한국고전번역원, 2001, 116쪽. “沈長世 …… 尋遭丁丑之變，不樂居都下，嘗出宰榮川，甲申聞崇禎皇帝殉社稷，益無當世志，聞洪宇定·鄭養·姜洽·洪錫等隱於太白山，遂棄官同歸。”

38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39 그의 시들은 창작 연대순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작품 바로 앞에 배치된 <春夜書懷>가 충주로 가기 전날 밤에 지은 것(이종목, 「회와 안중환의 삶과 시」, 『한국한시작가연구』 16, 한국한시학회, 2012, 63쪽)이므로 이 시는 충주로 옮긴 후에 지은 것이 분명하다.

40 이세롬, 앞의 논문, 130쪽.

41 한국고전종합DB<한국고전총간>영남인물고 권12(https://db.itkc.

는 김포의 통진에 묻혔으나⁴³ 그는 봉화군 북쪽에 있는 와란(臥丹) 두곡(杜谷)에 묻혔으니,⁴⁴ 집안의 막강한 권세를 고려할 때 그는 세상에 ‘나올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나오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듯 서울 양반들이 현실의 다양한 문제로 인해 지방으로의 이거를 결정할 때 이거를 선택한 지역에 따라서 이거 이후의 삶의 행적은 사뭇 달랐다.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살펴본 몇 개의 사례들에서 삶의 대안처로 충청을 택한 이들의 경우 중앙으로의 복귀를 꿈꿨던 반면, 경상을 택한 이들의 경우 그렇지 않았다. 2장에서 언급한 조익과 홍우정 역시 아산으로 이주한 조익은 인조반정 후에 다시 출사한 반면, 봉화로 이주한 홍우정의 경우 그곳에서 여생을 보냈다. 생각해 보면 충청과 경상은 인접해 있는 탓에 둘 사이의 물리적 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이러한 차이가 엿보이는 까닭은 무엇인가? 필자는 두 지역 사이의 지리적 분기점이기도 한 조령(鳥嶺)에 주목하고자 하는바, 이에 대해서는 장을 달리하여 살펴보고자 하자.

4. 충청과 경상의 로컬리티와

조령(鳥嶺)의 영향

조령(鳥嶺)은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과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사이에 위치한 해발 642m의 고개로, 충청과 경상의 도계(道界)를 이루는 동시에 한양과 동래를 연결하는 3개의 영남대로 가운데 가장 중심적인 길이었다. 그리

하여 경상도의 지리적 위치를 설명하는 자리에 빠짐없이 등장하곤 하였으니, 예컨대 다음의 사례가 그러하다.

경상도는 토질이 비옥하고 풍속이 순박하며, 의식이 풍속하고 문물이 찬연하다.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이 또한 모두 갖추어져 있으니 낙원이라 할 만하다. 이곳은 사대부나 농민 모두 마땅히 거주할 만한 곳이지만 서울과 거리가 너무 멀고 조령길은 하늘에 닿는다. 하늘이 닿는 남쪽 끝이 경상도가 되고 북으로는 서울로 오르는 길이다.⁴⁵

18세기 학자 대유 우하영(1741~1812)이 남긴 글이다. 주목할 점은 “서울과 거리가 너무 멀다”는 것과 “조령길은 하늘에 닿는다”가 나란히 병치되어 있다는 것인데, 서울과의 거리를 따지는 맥락에서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은 조령길을 함께 언급하는 것은 어딘지 모르게 어색하다. 그리하여 필자는 후자에 대해 조령 자체가 높다는 것에 더해 지세가 험난해서 오르기가 어렵다는 의미 또한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자 하는데, 실제 조령을 중국의 ‘촉도(蜀道)’에 비유한 사례⁴⁶들이 적지 않게 보이며, 수촌 임방(1640~1724)의 경우 조령의 명칭에 ‘새(鳥)’가 포함된 까닭을 새 한 마리 정도 지나갈 수 있는 좁고 위태로운 길에서 찾기도 했다.⁴⁷

그런데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고갯길은 그 자체가 이 지역과 저 지역을 물리적으로 구분하는 자연적 경계가 되기도 하면서 내가 속해 있는 세계와 내가 속해 있지 않은 세계를 가르는 심리적 경계가 되기도 한다. 특히 조령과 같이 높고 험준하여 오르기가 쉽지 않은 곳은 더욱 그러할 텐데, 이렇게 볼 때 조선시대의 문인들에게 조령을 넘어가는 일은 일

43 이식, 「外舅贈領議政行玉果縣監沈公惓墓誌銘」, 『택당집』 권6, 『한국문집총간』 88, 한국고전번역원, 1988, 360쪽. “萬曆己酉二月二十一日, 在通津甕井里莊舍卒, 年四十七. 初葬其里先隴之左麓.” 이식, 「行狀」, 『휴옹집』 권5, 『한국문집총간』 84, 한국고전번역원, 1988, 399쪽. “公諱光世, 字德顯, 號休翁. …… 丙子冬, 並啓先妣之葬, 遷于通津先塋之北.”

44 한국고전종합DB〈고전번역서〉〈재향지〉〈순흥지〉〈능묘(陵墓)〉(https://db.itkc.or.kr/dir/item?itemId=GO#/dir/node?dataId=ITKC_GO_1439A_0010_000_0230). “府使沈長世墓, 在臥丹杜谷.”

45 우하영, 김혁 외 역, 『역주 천일록 제1책』, 화성시, 2015, 82쪽.

46 주세붕, 「聞慶次板上韻, 錄奉趙使君」, 『무릉잡고 별집』 권4, 『한국문집총간』 27, 한국고전번역원, 1988, 128쪽. “鳥關難蜀道, 茲縣卽喉之.”

47 임방, 「鳥嶺」, 『수촌집』 권1, 『한국문집총간』 149, 한국고전번역원, 1995, 9쪽. “到嶺知名鳥, 纔容鳥道通, 絕崖斜抱石, 危棧細盤空.”

상적이지 않은 경험이었으며, 어쩌다 조령을 넘을 경우 자신이 이전과는 다른 세계로 진입한다는 느낌을 갖게 되었을 공산이 크다.

①

鳥道連雲漢水深 험한 길은 구름에 닿고 한강물은 깊은데
一年何事再登臨 한해 동안 무슨 일로 거듭 이곳을 오르는가?
故山松桂應無恙 고향의 소나무와 계수나무 아무 일 없을 테니
早晚攜書得素心 조만간 책 싸 들고 평소 마음 이루리라.⁴⁸

②

嶺路崎嶇苦不窮 조령의 험한 산길 끝없이 이어지니
危橋側棧細相通 위태로운 다리, 기울어진 잔도로 간신히 지나가네
長風馬立松聲裏 거센 바람 솔소리에 말이 주춤거리고
盡日行人石氣中 온종일 길 가는 사람 바위 기운 속이로세
幽澗結冰厓共白 얼음 언 깊은 시내 비탈과 함께 하얗고
老藤經雪葉猶紅 눈 맞은 늙은 덩굴 잎이 더욱 빨갛네
到頭正出鷄林界 마침내 바야흐로 계림의 경계 벗어나
西望京華月似弓 서쪽으로 서울을 바라보니 그믐달이 걸렸구나.⁴⁹

①은 조선 후기의 문신 대산 이상정(1711~1781)이 쓴 시이다. 문집에 배치된 순서로 볼 때 이 작품은 그가 지금의 경북 포항인 연일(延日) 현감으로 재직할 때 지은 것으로 보이는데,⁵⁰ 부기에 따르면 “7월에 일이 있어 서울로 갔다”라고 되어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자신이 맡고 있는 관직과 관련된 일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제목과 내용을 참조할 때 연일에서 서울로 가는 길에 조령을 통과했던 모양인데, 그는 조령에서 고향인 안동집에 심겨 있는 소나무와 계수나무를 떠올린다. 이어서 “조만간 책 싸 들고 평소 마음 이루리라”라는 자만의 다짐을 토로하는바, “책 싸 들고”라든지 “평소 마음” 등을 감안하면 이는 관직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다짐으로 이해된다. 하나 더 주목할 점은 그가 조령을 넘으면서 ‘한강’을 떠올리고 있다는 것인데, 그에게 있어 조령을 넘는다는 것은 중앙이 아닌 곳에서 중앙으로 진입함을 의미했던 것이다.⁵¹ 따라서 1행의 ‘험한 길’과 ‘깊은 물’에는 ‘험하지도 않고 깊지도 않은 안정된 세상’으로부터 ‘험하고 깊은 불안정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의 심리적인 불안감이 투영되어 있는 것으로 읽힌다.

②는 다산 정약용의 시이다. “이때 부친께서 어사의 탄핵을 받았는데 나는 먼저 길을 떠났다”라는 부기를 보면 다산의 젊은 시절 작품으로 추정되는데, 부친 정재원(1730~1792)이 예천 군수 시절(1780) 영남 암행어사 이시수로부터 탄핵을 당한 기록⁵²이 있으므로 이 작품 역시 그 어름에 지은 것으로 보인다. 1~6행에는 혹독한 추위 속에 험준한 조령을 넘는 고통이 생생하게 전개되는데 이와 같은 시적 흐름은 조령을 넘은 상태[“마침내 바야흐로 계림의 경계 벗어나”]로 보이는 7행에 와서 급격한 반전을 이룬다. 그는 조령을 넘자마자 서쪽을 바라보며 하늘에 걸려 있는 그믐달을 응시하는데, 여기서 “그믐달”이 임금을 가리킨다

51 어강석은 이 시를 근거로 이상정이 조령에 대해 「경(京)과 향(鄕)의 경계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분석하였다. 어강석, 「조선시대 문인들의 ‘충주’에 대한 지역 인식」, 충북대 인문학연구소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단 편, 앞의 책, 303쪽.

52 『정조실록』 4년(1780) 12월 21일, “영남 암행어사 이시수(李時秀)가 복명(復命)하였다. 이시수와 대신·전신(銓臣)을 불러 보니, 이시수가 서계(書啓)를 올렸다. 맨 먼저 관찰사 조시준(趙時俊)이 도내 수령들의 남조(濫糶)의 잘못을 금지하지 못한 것을 논핵하고, 또 김해 전 부사 손상룡(孫相龍), 남해 현감 노정윤(盧廷尹), 경주 부윤 이진익(李鎭翼), 밀양 부사 홍병은(洪秉殷), 예천 군수 정재원(丁載遠), 거창 부사 허명(許冥), 단성 현감 신광요(申匡堯), 경주 영장 이윤춘(李潤春), 충주 영장 권숙(權璠), 자여 찰방(自如察訪) 정경조(鄭景祚), 유곡 찰방(幽谷察訪) 최수옹(崔粹翁) 등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상황을 말하였다. 이조와 병조에서 복주(覆奏)하니, 차등 있게 논죄하였다.”

48 이상정, 「鳥嶺途中偶占 七月○因事赴都」, 『대산집』 권2 『한국문집총간』 226, 한국고전번역원, 1999, 56쪽.

49 정약용, 「冬日領內赴京, 踰鳥嶺作 時家君爲御史所陷, 余乃先行」, 『여유당전서_시집』 권1 『한국문집총간』 281, 한국고전번역원, 2002, 10쪽.

50 이 시 바로 앞에 「清明閣東階下移種十挺竹」가 수록되어 있는데 ‘청명각’은 연일 관아에 딸린 전각이라는 점에서 이 시 역시 연일 현감으로 재직 시에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으니, 앞의 이상정과 마찬가지로
그 역시 조령을 넘으면서 곧바로 ‘경화(京華)’, 곧 서울을
떠올리고 있는 것이다.

① 비록 조그마한 일이라도 폐단이 일어나는 단서가 될 수
있다고 여겨서, 이름이 조적(朝籍)에 올라 있는 사람들조차 관
직이 없다면 조령을 넘지 않으니, 이것도 청탁의 혐의를 피한
것이다.⁵³

② 6월에 다시 지평에 임명되어 사직하였으나 윤희 받지
못했다. 조령 아래에 나아가 병을 이유로 정장(呈狀)하여 체직
되었다.⁵⁴

③ 공이 돌아온 후에 여러 아우에게 말하기를, “나의 이번
행차는 대귀(大歸)이니, 어찌 다시 조령(鳥嶺)을 넘고 한강을
건너겠는가? 이제부터 살아서는 날마다 일어나 선인(先人)의
오두막에 거처하면서 만년의 허물을 개선하고, 죽어서는 사
서(司書)라는 하나의 직함을 명정(銘旌)에 쓴다면 충분할 것이
다”라고 하였다.⁵⁵

이미 한 차례 등장한 바 있는 우하영은 경상도의 두터
운 풍속을 설명하면서 ①의 사례를 들었다. “이름이 조적
(朝籍)에 올라 있는 사람들조차 관직이 없다면 조령을 넘
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백의유령(白衣踰嶺)”이란 표현이
『승정원일기』에서 20건 정도 검색⁵⁶되는 것을 보면 이 말
은 경향의 사대부들에게 널리 알려진 일종의 숙어(熟語)였
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관직이 없다면 조령을 넘지 않

는다.’는 말은 ‘조령을 넘는다면 관직이 생겼다.’는 의미이
므로, 이 말은 ‘조령을 넘는다’라는 지시적 의미가 ‘중앙의
관료 사회에 진입한다’라는 비유적 의미로 확장된 사례에
해당한다. ‘조령’이라는 자연적 경계가 세속과 세속이 아
닌 곳을 가르는 심리적 경계로 작용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갈암 이현일(1627~1704)의 사례인 ②에
서도 확인된다. 중앙의 관직을 그만두고 경북 영덕의 영해
에 거주하였던 그는 6월에 지평에 임명되자 병을 이유로
체직을 요청하는 상소를 올렸다. 그런데 그가 상소를 올린
곳은 다름 아닌 “조령 아래”였으니, 그가 영해에서 문경까
지의 만만치 않은 거리와 조령을 넘어야 하는 수고를 굳이
마다하지 않았던 것은 곧 조령 너머의 지역부터가 중앙의
자장이 미치는 곳이라는, 조령에 대한 상상적 이미지와 무
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외손(外孫)인 이상정 역시 안동
을 떠난 지 7일 만에 조령을 넘고 충주에 이르러 사직소를
올렸으니,⁵⁷ 조령 너머와 충주 모두 충청도에 속한다. ③은
퇴계의 7세손 이세진(1680~1740)에 대한 묘갈명이다. 주
지하듯 ‘대귀’란 여자가 이혼하여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
또는 죽음을 뜻하지만 여기서는 관직에서 벗어나 고향으
로 돌아온다는 의미로 쓰였다. 그는 이러한 자신의 뜻을
특정 공간을 빌어 비유하였으니, “조령(鳥嶺)을 넘는다”와
“한강을 건넌다”가 대귀의 반대 방향, 곧 중앙으로의 출사
를 가리킨다는 것은 체언을 요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는 영남에서 조령을 넘어가는 경우뿐만 아니
라 조령을 넘어 영남으로 들어오는 경우 또한 마찬가지로
아니겠는가? 마침 앞서 살펴본 홍우정, 이수형, 심장세 모
두 서울에서 조령을 넘어 영남으로 들어온 후 다시는 세상
으로 나아가지 않았으니, 경상에 부여된 심상지리는 세속
적 세계와의 완전한 절연이라는 점에서 충청의 그것과 적
지 않게 다르며, 여기에는 지리적 경계이자 심리적 경계
에 해당하는 ‘조령’이 만만치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
인다.

53 우하영 지음, 앞의 책, 79쪽.

54 이재, 「先府君家傳」, 『갈암집_부록』 권4 『한국문집총간』 128, 한국고전
번역원, 1994, 571쪽. “六月, 又拜持平, 辭不允. 進至嶺下, 呈病見遞.”

55 정종로, 「侍講院司書李公墓碣銘 並序」, 『입재집』 권38 『한국문집총간』
254, 한국고전번역원, 2000, 136쪽. “公既歸, 語諸弟曰吾之此行, 是大歸
也, 豈可復踰嶺渡漢乎? 自茲以往, 生而日興居先人廬, 以補晚愆, 死以司
書一銜題銘旌足矣.”

56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 (<https://sjw.history.go.kr/main.do>).

57 어강석, 앞의 글, 298~299쪽.

5. 결론

서론의 말을 한번 더 반복하는 것으로 결론을 시작한다. 우리가 무형의 로컬리티를 유형의 텍스트로부터 찾아내려 할 때 유념해야 할 것은 그것이 해당 지역만의 어떤 조건에서 기인한 특수한 현상이라는 점인데, 이는 거꾸로 말하면 그 어떤 조건이 부재하는 지역에서는 그러한 현상이 발견되지 않거나 다른 양상으로 발현된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를 ‘조령(鳥嶺)’의 사례를 경유하여 탐색하였는바, 주지하듯 조령은 충청도와 경상도 사이를 이어주는 말 그대로의 ‘교통로’인 동시에 두 지역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기도 한다. 이 가운데 본 논문에서는 후자에 좀 더 주목하였으니, 조령의 경우 한양과 동래를 잇는 영남대로(嶺南大路) 상의 지형적 장벽들 가운데서도 지세가 높고 험준한 것으로 유명했던 터라⁵⁸ 교통로로서의 이미지만큼이나 장애물로서의 이미지 또한 만만치 않게 강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조령의 이미지가 실제 현실에 미친 영향은 어떠했는가? 지금껏 살펴본 바에 따르면, 조선 시대 서울 양반들이 현실적 문제로 인해 서울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지방으로의 이주를 결행할 때 삶의 대안처로 어떤 지역을 선택했는가에 따라 이주 이후의 행적은 매우 달랐다. 충청을 택한 이들의 경우 중앙으로의 복귀를 꿈꾼 경우가 많았지만, 경상을 택한 이들의 경우 세상과 절연한 채 그곳에서 생을 마치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이는 아마도 조령을 기준으로 북쪽을 ‘세속의 세계’로, 남쪽을 ‘세속이 아닌 세계’로 구분했던 당대인들의 상상적 인식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충청과 한양 사이에는 조령에 비견될 정도의 지리적 장애물이 존재하

지 않는바, 충청과 경상의 서로 다른 로컬리티와 조령에 대한 심상지리는 이 지점에서 만날 수 있다.

58 “영남대로는 한강의 지류인 탄천·청미천·달천, 낙동강과 그 지류인 영강·금호강·유천·밀양(남천)강·양산천 등의 하곡과 분지를 따라 건설되었다. 그러므로 조령(638m), 팔조령(398m) 등을 제외하면 200m를 넘는 지형적 장벽은 거의 없었다.” 최영준, 『한국의 옛길 영남대로』,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990, 335쪽.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성해음, 『연경재전집』, 『한국문집총간』 275, 한국고전번역원, 2001.
 송준길, 『동춘당집』, 『한국문집총간』 107, 한국고전번역원, 1988.
 안중환, 『회와집』, 『한국문집총간속』 65, 한국고전번역원, 2008.
 우하영, 김혁 외 역, 『역주 천일록』, 화성시, 2015.
 이식, 『택당집』, 『한국문집총간』 88, 한국고전번역원, 1988.
 이자, 『음애집』, 『한국문집총간』 21, 한국고전번역원, 1988.
 이상정, 『대산집』, 『한국문집총간』 227, 한국고전번역원, 2002.
 이유태, 『초려집』, 『한국문집총간』 118, 한국고전번역원, 1988.
 이중환, 안대회 외 역, 『완역 정본 택리지』, 휴머니스트, 2018.
 이현일, 『갈암집』, 『한국문집총간』 128, 한국고전번역원, 1994.
 임방, 『수촌집』, 『한국문집총간』 149, 한국고전번역원, 1995.
 장약용, 『여유당전서』, 『한국문집총간』 281, 한국고전번역원, 2002.
 정종로, 『입재집』, 『한국문집총간』 254, 한국고전번역원, 2000.
 주세붕, 『무릉잡고』, 『한국문집총간』 27, 한국고전번역원, 1988.
 홍우원, 『남파집』, 『한국문집총간』 106, 한국고전번역원, 1988.
 홍우정, 『두곡집』, 『한국문집총간속』 26, 한국고전번역원, 2006.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https://sjw.history.go.kr/main.do).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2. 단행본 및 논문

- 김경수, 「충청유교문화권 개발과 유교의 현재화를 위한 제언」, 『한국사학사학보』 39, 한국사학사학회, 2019.
 김승환, 『인문학 개념어사전 2』, 소명출판, 2022.
 김창원, 『고전시가의 지역성과 심상지리: 조선시대 서울 및 근기 지역을 대상으로』, 한국문화사, 2018.
 김채식, 「이규경의 우북동 변증에 대한 고찰」, 『한문학보』 20, 우리한문학회, 2009.
 민황기, 「충청유학의 현재와 미래가치」, 『울국학연구』 43, (사)울국연구원, 2020.
 박상영·안상우, 「오주 이규경의 생애 연구」, 『민족문화』 31, 한국고전번역원, 2008.
 신영주, 「두곡 홍우정의 일생과 시작활동에 관한 고찰: 천안 유배기를 중심으로」, 『한문고전연구』 33, 한국한문고전학회, 2016.
 안대회, 「조선 후기의 좋은 집터, 이상적 거주공간의 이론과 실제: 『임원경제지』 「상택지」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83,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9.
 ———, 「청담 이중환 생애의 재조명」, 『한국한문학연구』 73, 한국한문학회, 2019.
 ———, 「『택리지』와 조선 후기 지방 이해의 혁신: 부랑하는 존재의 이주와 정주」, 『한국한문학연구』 53, 한국한문학회, 2014.
 양승목, 「조선 후기 십승지론의 전개와 「살 곳 찾기」의 항방」, 『한국한문학연구』 63, 한국한문학회, 2016.
 이새롬, 「조선 후기 문인의 남한강 유역 공간 인식과 시적 형상화」,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22.
 이중목, 「회와 안중환의 삶과 시」, 『한국한시작가연구』 16, 한국한시학회, 2012.
 이혜준, 『고을과 마을의 문화 이야기: 지역문화와 생활문화』, 세창출판사, 2015.
 정주아, 『서북문학과 로컬리티: 이상주의와 공동체의 언어』, 소명출판, 2014.
 최연식, 「조선시대의 중앙-지방 관계와 「경기」 제도의 발전」, 『연세행정논총』 29,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6.
 최영준, 『한국의 옛길 영남대로』,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990.
 충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단 편, 『고전문학으로 충북을 읽다』, 충북대학교 출판부, 2021.
 하운섭·김소라, 「『의림지』를 둘러싼 문학기리지학적 접근과 로컬리티의 발굴: 고전문학과 지리학의 학제 간 연구를 겸하여」, 『한국연구』 15, (재)한국연구원, 2023.

Abstract

The Imaginary Geography of Joryeong and the Locality of Chungcheong

Exploring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Chungcheong through a comparison with Gyeongsang

Ha, Yun-Sub |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

Nam, Hyang | Chungbuk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When attempting to identify intangible localities from tangible texts, it is important to keep in mind that they are phenomena derived from specific conditions unique to that region. Conversely, this means that in areas where such conditions are absent, these phenomena may not be found or may manifest differently. This paper explores this concept through the case of 'Joryeong.' As is well known, Joryeong serves as a literal 'transport route' connecting Chungcheong and Gyeongsang, while also acting as an 'obstacle' between the two regions. This paper focuses more on the latter aspect; in the case of Joryeong, it is famous for its high and rugged terrain among the geographical barriers along the 'Yeongnam-daero (嶺南大路)' connecting Hanyang and Dongnae, thus possessing a strong image as both a transport route and an obstacle. What, then, was the impact of this image of Joryeong on reality? The paths taken by the Yangban of Seoul during the Joseon Dynasty, when they decided to leave their lives in Seoul due to practical issues and migrate to the provinces, varied significantly depending on which regions they chose as alternatives. Those who chose Chungcheong often dreamed of returning to the central region, while many who opted for Gyeongsang ended their lives there, disconnected from the world. This distinction likely relates to the contemporary imaginary perception that defined the north of Joryeong as the 'secular world' and the south as the 'non-secular world.' There are no geographical obstacles comparable to Joryeong between Chungcheong and Hanyang, which is where the localities of Chungcheong and Gyeongsang and the geomorphic imagery of Joryeong intersect.

Keywords Joryeong, Chungcheong, Gyeongsang, Locality, Imaginary Geography

이 논문은 2024년 11월 25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4년 11월 3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4년 12월 23일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가 결정된 논문임.